마을 액운을 막아주는 당산목의 느티나무

지정번호	무주-9-8-5
지정년도	1982
관리기관	무주
수령	506년
수고	20m
흉고둘레	6.9m

전북 무주군 안성면 금평리 583
35°52′36.33″N
127°41′39.96″E

둑을 보호하는 호안목의 역할을 하는 보호수(무주-9-8-5) 느티나무는 두문마을의 농로길이면서 3갈래의 마을길 옆에 자라고 있다. 느티나무의 나이는 506년으로 추정된다. 나무높이는 20m, 가슴높이둘레는 690cm, 밑동둘레는 720cm 정도이다. 나무갓은 너비가 20m 정도이며, 가지가 잘 자라서 잎이 무성하다. 원줄기는 높이 2.5m 정도에서 크게 2갈래로 갈라졌으며, 그 위쪽에서 다시 여러 갈래로 갈라졌다. 생육상태는 양호하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선비의 장원급제를 비롯하여 뱀과 관련하고 있다. 옛날에 학업을 열중하지 않던 선비가 어느 날 신선을 만난 후 마을에 내려와 지팡이를 꽂아 두었다. 지팡이를 꽂은 이유는 지팡이에서 싹이 돋을 때까지 학업에 정진하겠다는 다짐을 하기 위함이었다. 선비는 지팡이에서 잎이 나올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였기에 과거에 급제하여 세상을 이롭게 하였다. 또한 마을 사람들이 이 느티나무를 여러 차례 베어내려 하였으나, 그때마다 황구렁이 한 마리가 큰 가지에 똬리를 틀고 앉아 사람들을 해칠 듯 널름거렸다. 어느 해 마을 사람들이 의논하여 가지를 꺾으려고 다가가니 황구렁이 한 마리가 나무를 휘감아 베지 못하였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후부터는 작은 가지 하나도 꺾지 않았다. 또한, 마을 사람들은 느티나무 잎이 나오는 것을 보고 한 해 모내기 일을 예견하였다. 봄에 느티나무 잎이 동시에 나오면 온 마을의 모내기가 일시에 이루어져 풍년이 들고 나뭇잎이 가지마다 나오는 시기가 일정하지 않으면 가뭄이 들어 모내기 일도 어려워진다. 두문마을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이 느티나무의 잎이 피는 모양을 보고 농사를 지어왔다. 마을 사람들은 액운을 막아주는 마을의 수호목 또는 당산목이면서 쉼터의 역할을 하는 정자목으로 여기고 있다.